황중곤

이상희

"KPGA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황중곤·이상희 벌써 훈련개시

박준섭·김태우·장태형도 전역…내년 복귀
서형석·이창우 등 군입대로 잠시 투어 떠나

병역을 마친 선수들이 2022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복귀한다. 반면 군 입대를 위해 잠시 투어를 떠나는 선수들도 있다.

황중곤(29), 이상희(29)를 비롯해 박준섭(29), 김태우(28), 장태형(23) 등 5명은 최근 KPGA에 내년 시즌 군 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2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해 2014년 '매일유업 오픈', 2017년 '제60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정상에 올라 2승을 수확한 황중곤은 일본투어에서도 4승을 거둔 강자다. 지난달 30일 전역한 황중곤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끝내 기쁘다. 군 생활 동안 골프 선수로서 활동한 덕분에 현재 컨디션이 좋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2022년이 기대된다. 복귀 해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31일 입대해 육군 7사단에서 박격포병과 관측병으로 근무한 코리안투어 4승의 이상희도 10월 제대한 뒤 내년 시즌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휴가도 많이 나오지 못해 복무 기간에 골프채를 잡지 못했다"는 이상희는 "그만큼 골프에 대한 애정과 절실함이 강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골프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희는 2011년 코리안투어에 입성해 데뷔 첫 해 'NH농협 오픈'에서 19세 6개월 10일의 나이로 우승하며 당시 역대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썼던 주인공이다.

2018년 '골프존·DYB교육 투어챔피언십(파70)' 최종 라운드에서 10언더파 60타, 역대 코리안투어 18홀 최저 타수 타이기록을 작성했던 박준섭과 2013년 데뷔한 김태우, 2020년 투어 시드 확보 뒤 군에 입대했던 장태형도 내년 시즌 코리안투어로 돌아온다.

반대로 코리안투어 2승의 서형석(24), 지난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던 이창우(28), 2020년 '제36회 신한동해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올랐던 박정환(28) 등은 군 입대로 잠시 투어를 떠나게 됐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기의 IBK기업은행, 새 사령탑으로 김호철 감독 선임

"팀 재정비 최우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6년만에 V리그 복귀, 여자부는 처음
수평적 소통으로 새 문화 정착 기대

김사니 사의 수용·조송화 아웃 방침
윤종원 구단주 "재창단 각오로 쇄신"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새 사령탑으로 김호철 감독(66)을 선임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8일 김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머물다 6일 귀국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 김 감독은 18일 흥국생명전을 통해 IBK기업은행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계약기간은 2023~2024시즌까지다.

2015년 3월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지휘봉을 내려놓았던 김 감독은 6년 9개월 만에 V리그로 돌아오게 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남자배구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바 있다. 김 감독이 여자팀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김 감독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워크와 소통을 통해 선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는 인물"이라며 "수평적 소통과 팀워크를 토대로 올바른 배구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합한 감독이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 감독은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속히 팀을 재정비해 IBK기업은행 배구단이 명문구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IBK기업은행 구단은 논란을 야기한 김사니 코치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무단이탈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10일)를 앞둔 세터 조송화를 두고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프로팀답지 않은 일처리로 비난을 자초했던 IBK기업은행 구단은 프런트 혁신의 일환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고, 전문인력 보강 등의 혁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 구단주는 "구단주로서 이번 사태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선수단 내 불화와 팀 이탈, 임시 감독대행 선임 등의 과정에서 미숙하고 사려 깊지 못한 구단 운영으로 팬들의 실망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선수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창단이라는 각오 아래 신임 감독을 중심으로 한 선수단 체질 개선, 프런트의 근본적인 쇄신 추진 등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난파 위기의 IBK기업은행을 이끌 새 선장으로 김호철 전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이 선임됐다. 김 감독으로선 2015년 3월 현대캐피탈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6년 9개월만의 V리그 복귀다. 스포츠동아DB

도로공사가 12연승 현대건설 잡은 비결 '승리 욕심'

김종민 감독 "저 팀 못이겨" 자극
풀세트 끝 역전승…집중력 돋보여

7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의 3라운드 경기는 근래 보기 드문 명승부였다.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았다. 달아나면 쫓아가고, 추월당하면 재차 뒤집는 숨 막히는 흐름이 경기 내내 이어졌다.

결국 도로공사가 개막 12연승을 내달리던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2로 물리쳤다. 외국인 선수 켈시가 31득점으로 양 팀 통틀어 최다를 기록했고, '클러치 박' 박정아도 19득점으로 제몫을 다 했다. 대어를 잡고 5연승을 거둔 도로공사는 3위(승점 25)로 뛰어오르며 본격적인 선두권 경쟁을 예고했다.

이날 도로공사는 높이에서 이겼다. 양효진을 앞세운 현대건설은 V리그 최강의 높이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도로공사가 강했다. 도로공사는 블로킹으로 총 14점을 얻었다. 11득점의 현대건설보다 많았다. 4득점을 기록한 켈시를 비롯해 박정아, 전새얀(이상 3득점) 배유나, 정대영(이상 2득점) 등 주전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네트 플레이를 펼쳤다. 특히 센터 배유나와 정대영은 둘이 합쳐 17개의 유효블로킹을 기록할 정도로 몸놀림이 가벼웠다. 최고의 외국인선수로 꼽히는 현대건설 야스민의 공격성공률을 28.8%(24득점)에 묶을 수 있었던 것도 블로킹 덕분이었다.

도로공사가 개막 12연승을 질주하던 현대건설을 7일 안방에서 잡았다. 김종민 감독은 "선수들이 이기려는 욕심이 많았다. 3세트도 아깝게 넘겨줘서 4세트에는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선수들이 잘 극복해줬다"며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을 칭찬했다. 사진제공 | KOVO

아울러 도로공사의 집중력도 돋보였다. 도로공사는 뒤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선수들끼리 호흡이 잘 맞았다. 랠리가 길어져도 끝까지 버티며 기회를 노렸다. 리베로 임명옥의 끈질긴 수비가 큰 힘이 됐다. 수비가 안정되면 공격은 살아나기 마련이다. 이날 도로공사의 범실은 14개였던 반면 현대건설은 무려 33개였다. 현대건설은 공격득점 74-60으로 우세했지만, 잦은 실수로 무너졌다.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의 심리전도 승리에 한몫했다. 3세트에 선수들이 부진하자 한마디를 던졌다. "너네 저 팀 못 이기니깐 편안하게 해." 그 말이 자극제가 됐다.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3세트는 내주긴 했지만 끝까지 따라붙어 듀스 접전을 벌였고, 이어 4·5세트를 연거푸 따냈다. 김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이기려는 욕심이 많았다. 3세트도 아깝게 넘겨줘서 4세트에는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선수들이 잘 극복해줬다"고 말했다.

최현길 기자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농구 〈7일〉

•2021-2022 KGC 정관장 남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T	19	14	5	0.737	0	6승
2	SK	18	12	6	0.667	1.5	1승
3	오리온	18	10	8	0.556	3.5	2승
3	인삼공사	18	10	8	0.556	3.5	3패
5	DB	19	9	10	0.474	5	2승
5	현대모비스	19	9	10	0.474	5	1패
7	KCC	18	8	10	0.444	5.5	1패
7	가스공사	18	8	10	0.444	5.5	3패
9	LG	18	6	12	0.333	7.5	1패
10	삼성	19	6	13	0.316	8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니콜슨	가스공사	24.5	① 김시래	삼성	7.2	① 마레이	LG	13.2
② 워니	SK	22.7	② 김낙현	가스공사	5.8	② 워니	SK	12.5
③ 스펠맨	인삼공사	21.2	③ 변준형	인삼공사	5.7	③ 라건아	KCC	11.3
④ 라건아	KCC	19.3	④ 김선형	SK	5.2	④ 니콜슨	가스공사	10.4
⑤ 힉스	삼성	17.7	⑤ 박찬희	DB	5.1	⑤ 라렌	KT	10.2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13	12	1	0.923	0	3승
2	우리은행	12	9	3	0.750	2.5	6승
3	신한은행	12	7	5	0.583	4.5	2패
4	삼성생명	13	6	7	0.462	6	1승
5	BNK 썸	13	3	10	0.231	9	1패
6	하나원큐	13	1	12	0.077	11	7패

NBA 〈8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브루클린	17	7	1	시카고	17	8	1	마이애미	14	11
2	필라델피아	13	11	2	밀워키	16	9	2	워싱턴	14	11
3	보스턴	13	12	3	클리블랜드	13	12	3	샬럿	14	12
4	뉴욕	12	12	4	인디애나	10	16	4	애틀랜타	13	12
5	토론토	11	13	5	디트로이트	4	19	5	올랜도	5	20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16	7	1	골든스테이트	20	4	1	멤피스	14	10
2	덴버	11	12	2	피닉스	20	4	2	댈러스	11	12
3	미네소타	11	13	3	LAC	13	12	3	샌안토니오	8	15
4	포틀랜드	11	14	4	LAL	13	12	4	휴스턴	7	16
5	오클라호마	7	16	5	새크라멘토	10	14	5	뉴올리언스	7	19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듀란트(브루클린)	653	28.4	① 하든(브루클린)	231	9.6	① 카펠라(애틀랜타)	317	12.7
② 아데토쿤보(밀워키)	607	27.6	② 영(애틀랜타)	236	9.4	② 사보니스(인디애나)	312	12
③ 데로젼(시카고)	633	26.4	③ 볼(샬럿)	198	8.3	③ 아데토쿤보(밀워키)	260	11.8
④ 영(애틀랜타)	657	26.3	④ 로우리(마이애미)	175	7.6	④ 알렌(클리블랜드)	247	11.2
⑤ 라빈(시카고)	647	25.9	⑤ 갈란드(클리블랜드)	167	7.3	⑤ 부세비치(시카고)	190	10.6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커리(골든스테이트)	637	27.7	① 폴(피닉스)	243	10.1	① 고베트(유타)	337	14.7
② 요키치(덴버)	460	25.6	② 웨스트브룩(LAL)	217	8.7	② 요키치(덴버)	243	13.5
③ 돈치치(댈러스)	485	25.5	③ 돈치치(댈러스)	162	8.5	③ 발란시우나스(뉴올리언스)	312	12
④ 조지(LAC)	599	25	④ 머레이(샌안토니오)	194	8.4	④ 우드(휴스턴)	257	11.2
⑤ 타운스(미네소타)	558	24.3	⑤ 릴라드(포틀랜드)	156	7.8	⑤ 예이츠(피닉스)	199	11.1

•경기결과

브루클린	102-99	댈러스	LAL	117-102	보스턴
뉴욕	121-109	샌안토니오	뉴욕	121-109	샌안토니오

NHL 〈8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애틀란틱	승	패	OT	P	순위	메트로폴리탄	승	패	OT	P
1	플로리다	17	4	4	38	1	워싱턴	16	4	6	38
2	토론토	18	7	2	38	2	뉴욕R	17	4	3	37
3	탬파베이	16	5	4	36	3	캐롤라이나	17	6	1	35
4	디트로이트	13	10	3	29	4	피츠버그	12	8	5	29
5	보스턴	12	8	1	25	5	콜럼버스	13	11	0	26
6	버펄로	8	14	3	19	6	뉴저지	9	9	5	23
7	오타와	7	16	1	15	7	필라델피아	8	11	4	20
8	몬트리올	6	18	3	15	8	뉴욕I	6	10	5	17

서부 콘퍼런스

순위	센트럴	승	패	OT	P	순위	퍼시픽	승	패	OT	P
1	미네소타	18	6	1	37	1	캘거리	15	6	5	35
2	St.루이스	13	8	4	30	2	애너하임	14	8	5	33
3	내슈빌	14	10	1	29	3	에드먼턴	16	8	0	32
4	콜로라도	13	7	2	28	4	새너제이	14	11	1	29
5	댈러스	13	7	2	28	5	베가스	14	10	0	28
6	위니펙	12	9	4	28	6	LA	10	10	4	24
7	시카고	9	14	2	20	7	시애틀	9	14	2	20

•경기결과

토론토	5-4	콜럼버스	탬파베이	3-2	몬트리올
뉴욕I	5-3	오타와	내슈빌	5-2	디트로이트
애너하임	2-0	버펄로	St.루이스	4-3	플로리다 (연장)
캐롤라이나	4-2	위니펙	뉴욕R	6-2	시카고
미네소타	4-1	에드먼턴	새너제이	5-3	캘거리

아마추어 경기결과 〈8일〉

농구 ●2021-2022 KBL D리그 1차(이천 LG 챔피언스파크)
•상무 90-78 KT

경기예고

프로배구 〈9일〉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 〈대전충무〉 IBK기업은행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OK금융그룹

오후7시, KBSN스포츠

프로농구 〈9일〉

•2021-2022 KGC 정관장 남자프로농구

KCC 〈전주실내〉 가스공사

오후7시, SPOTV2, SPOTV ON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하나원큐 〈하나원큐청라〉 삼성생명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아마추어 경기예고 〈9일〉

배드민턴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화순, 오전9시)

핸드볼 ●제 25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스페인)